## 다산포럼

송 재 소

# 고대(高大)앞 막걸리 촌

안암동 고려대학교 앞 막걸리 촌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겠다며 주민들이 재개발 신청서를 동대문 구청에 냈다고 한다. 그러자 고려대학교 측에선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동대문구와 서울시에 3차례나 제출했다고 한다. '수십 년간 고려대 학생들의 과격시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고, '학교 주변에는 대학 문화에 맞는 타운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대 측의 반대 이유이다.

나는 고려대학교 출신이 아니지만 대학시절을 고려대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른바 '고대의 막걸리 문화'를 잘 알고 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막걸리는 고대의 상징이었다. 고대생이 즐겨 부른다는 '막걸리 찬가'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마셔도 고대답게(혹은 사나이답게) 막걸리를 마시자 / 맥주는 싱거우니 신촌골로 돌려라 /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취하도록 /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함께 마시자 / 고려대학교 막걸리 대학교 …" 오랜 동안 막걸리는 고대의 '교주(校酒)'인 샘이었다.

너무도 유명한 한 토막. 어느 날의 고대 앞 '이모집'. 고대인들의 영원한 고향인 이모집에 중년의 신사가 들어와 주인을 보고 "오늘 여기 온 후배들 술값 내가 다 냅니다" 그러자 먼저 와있던 또 한 명의 사나이가 "학형은 몇 학번이시오?" "85학번인데요" "난 81학번인데 오늘은 참으시지" 눈물이 날 만큼 정겨운 이런 풍경이 사라질 판이니 재개발을 반대 할만도 하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10년 아니면 15년 전 쯤이었을까? 지금은 작고하신 민영규 선생께서 갑자기 동경 유학시절 학교 근처에서 먹었던 카레라이스 생각이 간절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아직도 그 집이 그대로 있어서 카레라이스를 먹으며 옛 추억에 잠길 수 있었다고 한다. 얼핏 사치스러운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 개인에 있어서 옛 추억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동숭동의 서울 문리대도 옛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오감도(烏瞰圖)'의 시인 이상(李箱)이 설계했다는, '아까렝가'라 불렀던 붉은 벽돌 강의실도, 학교 앞에서 막걸리 팔던 '쌍과부집'도 사라지고 없다. 그나마 대학본부 건물과 마로니에가 있어 아쉬움을 조금 달래주기는 하지만 옛날의 그 정든 교정은 아니다. 졸업 후 먼 훗날 다시 찾은 학교를 정답게 느끼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렇게 마냥 개인적 감상에만 젖어있을 일은 아니다. 고대 앞 주민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대학 문화에 맞는 타운" 운운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더구나 고려대학교는 최근 '막걸리 대학'의 이미지를 벗고 '와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는가? 지난 2005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서는 프랑스로부터 와인 2만 병을 주문하여 라벨에 대학 사진을 넣어 교내 판매까지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포도주 개론'이란 강의도 개설했다고 한다. 막걸리 대학에서 와인 대학으로 변신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와인이 고대의 교주(校酒)가 되지 못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막걸리 촌의 재개발을 반대하기에는 어딘가 명분이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고대와 주민들 중 어느 편에 서야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장해주고 고려대의 전통도 살리는 길이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원로(元老)가 된 어느 노교수가 학창시절에 외상술을 마시고 맡겼다는 학생증을 전리품처럼 내걸고 있는 그 막걸리 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국내기업 중국행 '러시' 이대로 둘 건가

중국으로 떠나는 한국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11년 동안 중국으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수가 5천여 개에 이르고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은 무려 2만2천 개를 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도 20여 개 기업이 국내를 탈출했다.

국내기업의 이탈은 무엇보다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책에 기인한다. 공장부지의 무료제공에다 세금감면, 부대시설 지원 등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저임금, 풍부한 노동인력, 무분규 등 유연한 노사문화도 한국기업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둥펑위에다기아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국내 기아차의 10분의 1수준인 25만 원에 불과하다. 중국이 제공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한국 기업의 중국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중국 이탈은 돈과 공장 시설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빼앗아 청년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 탈출로 2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는가. 더 이상 국내기업의 중국탈출을 방치한다면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 탈출 러시를 막으려면 기업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데려오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 나간 기업들에 현지시장의 위험요소를 알리고 자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일본의 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선 일본에 밀리고, 턱밑까지 따라온 중국 사이에 압박받는 '넛크래커(nutcracker)'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업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는 국내 기업을 붙잡을 재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청-한나라 고위급 실무접촉 기대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의한 민생경제회담과 관련,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30일 고위급 사전 실무접촉을 갖는다. 양측은 실무접촉에서 의제 등을 집중 조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과 경제 등 민생에 국한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청와대는 개헌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회담은 성사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팽배해 있다.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은 없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며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은 말뿐 실천하려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회담을 하려는 진정성이다. 양측이 진실된 대화 의지만 있다면 의제 등 회담의 조건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고 나서겠는가. 중요한 것은 의제나 형식이 아니라 국정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는 마음가짐이다.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법 개정안, 사학법 재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도 임박했다.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교육부담 줄이기 등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승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개헌 등 정치 현안을 의제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 개헌문제도 어차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청와대의 정략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거론해도 당론만 확실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본다. 회담의 성사만이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도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형 준

# 학벌 조장하는 현수막 다신 걸리지 않길

'합격을 축하합니다.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대구한의대×××(○○여고)' '서울대 3년 연속 수시합격 2007년도 7명 합격(□□고)''서울대학교 1차 합격(10명)××× …포항공과대학 합격 ×××(△△고)''경찰대 9명 합격(광주·전남 최다)×××…(△△고)'

매년 대학합격자 발표가 나면 어김없이 각 고등학교 교문에 나붙는 현수막 문구다. 이런 대학교들이 사회적으로 명문대라는 칭호를 받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은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었다.

입시학원은 교육이념과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내세워 자랑을 할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공교육 기관인 학교마저 이런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교육이념을 포기하고 입시학원화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학급당 35명의 학생이 10학급인 학교에서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의 학생을 특정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보냈으면서 자랑스럽게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닐 터이다.

과연 이 현수막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 없이 내건 현수막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가지 않고, 현장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학생들, 학벌이나 점수에 상관없이 특기와 적성에 맞게 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큰 상처와 상대적 패배감을 느낄 수 있다.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현수막이 길에 내걸리면 학생들은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평소에 학교가 입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13일 서울, 기말고사 성적 비관으로 인한 중학생 자살…' '14일 대구, 대학수능 성적 비관으로 인한 재수생 자살…'

결국 이 패배감은 성적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자살까지 이어진다. 어떻게 점수 한 자리가 높고 낮음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학생들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월 26일, 광주권 고등학교에 현수막이 사라졌다. 지난해 말부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현수막 철거 운동을 벌였고, 대부분 학교가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 결과다.

아직 이 지역 교육자들의 생각은 꽉 막혀있지만은 않은 듯 싶다.

학교는 교문 앞에 걸린 현수막에 거론된 몇몇 대학교만이 결코 명문대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도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모임 활동가〉

## 찰칵! 동물세상

# 돼지의 희생·순종에 감사를

돼지의 해에 돼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돼지는 현재 야생 종(멧돼지·페카리·흑멧돼지 등)만 14개 종에 이른다. 그 중 덩치가 큰 야생 멧돼지가 오랜 개량 과정을 거치면서 가축화됐다.

또 현재 가축화되면서 식용으로 쓰이는 돼지는 대요크셔·랜드레이스·듀록 등 40여종 정도에 이른다.

돼지의 수명은 20년 정도. 현재 식용용으로 사용되는 돼지는 겨우 5~6개월, 약 100kg정도에서 출하가 이루어진다.

생산자들이 공장형 사육을 하고, 소비자들도 이미 이 연령의 돼지고기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지금의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음식물사료화'를 통해 돼지를 저렴하게 사육하려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사료먹인 돼지에 입맛이 맞추어진 소비자들부터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규격화된 돼지생산이 어렵고 판로 확보가 불투명해서 생산자들도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섬 지역에선, 돼지는 인간이 남긴 부산물을 먹고 크며 소중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유용한 동물이다. 심지어 제주도에선 이 부산물마저 부족하여 인간의 최종산물인 똥을 먹고 크는 똥돼지도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돼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너무나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돼지란 동물에 대해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無等鼓

# '호랑이'

타이거 우즈가 시즌 첫 대회로 출전한 미국 프로골프 뷰익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했다. 그직후인 29일 아침 www.pga.com을 들여다 봤다. 색다른 뉴스라도 있을까 싶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우즈는 우승 트로피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어 사진설명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웃음이 절로 나왔다.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Hoisting trophies)은 이제 타이거 우즈에게는 그저 틀에 박힌 행복한 일과(a happy routine)가 되어 버렸다'고 쓰여 있었다. 이 대회 트로피를 5번이나 들었고 지난해부터 7번째 연속 PGA대회 트로피를 들고 있으니 어깨가 아플만도 하다.

4라운드로 펼쳐진 이 대회 첫날, 타이거는 선두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14위에 머물렀다. 이튿날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12위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3라운드, 멀리 떨어져 있는 먹잇감 추격에 나선 타이거는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말이 4위이지 공동선두 3명에 2타 뒤진 사실상 2위로 그들의 턱밑까지 쫓아갔다. 마지막날 타이거의 우승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기세였다.

3일 연속 1위로 달려온 무명의 스니데커를 비롯 공동선두 3명은 3라운드가 끝나서야 자신들이 이미 호랑이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떨기 시작했다. 선두 버클은 "마지막날 우즈와 한조에 편성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스니데커는 "(3위로 올라와 4라운드 우즈와 같은 조가 되지 않도록 해준) 서덜랜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여유를 부렸다. 그러나 마지막날 호랑이가 거침없이 달려들자 오금이 저린 그들은 힘 한번 못써보고 초장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골프스윙이 섹스와 닮았다고 말한 데이브 힐은 명언을 남겼다. "프로투어에서 성공하려면…,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잊을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호랑이 잡는 비책으로 권해본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 일반 구급차량 이용요금 적극 홍보 다툼 없게 해야

얼마전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 응급 구조 차량 운전기사와 환자 가족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봤다.

옆에서 들어보니 구급차 이용 요금 9만원을 요구했다가 환자 가족과 말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환자 가족은 두달전 같은 일로 구급 차량을 이용했을때도 4만원을 줬는데 왜 이번에는 6만원이나 달라고 항의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설 일반 구급차의 이용료 규정은 10km까지 운행하면 기본 2만원, 1km 추가될 때 마다 8백원을 더 받도록 규정돼있다. 반면 특수 구급차는 5만원에 천원씩 추가된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이같은 사항을 잘 모른다. 이 때문에 시민과 구급차량 운전자간 다툼이 일어날 우려도 높다.

국민들이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만큼 아프고 경황이 없는 환자 가족들에게 부당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 구급차량 이용 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홍보와 함께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백은희·순천시 야흥동

# 중소기업 공동화 심각… 현실 맞는 대책 절실

23년전 광주에서 공업고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공장에 취직했다. 그때만해도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고방식은 여전하기는 하지만, 그때 자동차 정비공장에 취직하니까 제일먼저 귀에 들린 말은 '기름밥 먹는 놈'이라는 소리였다. 거기다가 '고졸 인생'이라는 꼬리표는 지금도 따라다닌다.

하지만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어엿한 중견기업 관리자로써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후 나는 방송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경영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다.

요즘 고졸실업자가 35만명으로 위험수위라는 말이 들리는데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들이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위치에서 일하려들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중소기업의 제조업은 대기업의 전초기지로써 손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에서 작은 부품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 많은 부품들을 대기업들이 전부 떠안아야 되고 그럴 경우 대기업들의 생산시설이 눈덩이처럼 커져 그걸 관리하기도 힘들다.

중소기업들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공동화되고 있는 현실. 누군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큰일이 나고야 말 것이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 | | |
|---|---|---|---|---|---|---|---|
| 편집국안내 | | 사회2부 | 2200-619 | 총무부 | 2200-511 | 문화사업국 | 2200-541 |
| 〈대표FAX | 222-4918〉 | 〈FAX | 227-0118〉 | 〈FAX | 222-8005〉 | 〈FAX | 222-0195〉 |
| 편집부 | 2200-629 | 문화생활부 | 2200-626 | 광고국 | 2200-521 | 판매부 | 2200-551 |
| 정치부 | 2200-616 | 여론매체부 | 2200-628 | 〈FAX | 227-9500〉 | 〈FAX | 227-9500〉 |
| 경제부 | 2200-617 | 체육팀 | 2200-627 | 디자인 | 2200-536 | 서울지사 | 02-773-9331 |
| 사회1부 | 2200-618 | 사진부 | 2200-690 | 사업2부 | 2200-552 | 〈FAX | 02-773-9335〉 |
| 〈FAX | 222-4267〉 | 조사부 | 2200-570 | | | | |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